

#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 The Effect of the Elderly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Ki Seung Kim

Division of Oriental Scienc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C, D병원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5월8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일 동안 실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활동지향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과 관계가 있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등의 변수를 통제한 다음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효과 검증결과를 보면 목표지향성( $\beta = .244, p < .001$ )과 활동지향성( $\beta = .321, p < .001$ )은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습지향성( $\beta = .284, p > .001$ )은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은 학습지향적인 즉, 학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lifelong learning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is purpose, 160 elderly people who participated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in hospitals C and D located in Cheonan city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A survey was conducted for 10 days, from May 8, 2019 to May 17, 2019. First, does the goal-oriented factor, which is part of the lifelong learning motivation of the elder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does the activity-oriented factor of the elder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does the learning-oriented factor of elderly people's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lifelong learn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marital status, and education level were controll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direct effect analysis showed that goal-orientation ( $\beta = .244; p < .001$ ) and activity-orientation ( $\beta = .321, p < .001$ )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However, a learning-orientation ( $\beta = .284, p > .001$ ) was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se findings, lifelong learning programs for the elderly should be more goal-oriented and activity-oriented than learning-oriented to promot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Keywords** : Lifelong Learning, Elderly Person, Psychological Well-Being, Participation Motive, Learning-Oriented.

\*Corresponding Author : Ki-Seung Kim(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Received July 8, 2019  
Accepted October 4, 2019

Revised August 21, 2019  
Published October 31, 2019

## 1.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만 65세 이상)가 전체인구의 7%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시작으로 2017년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6년엔 총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21%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여러 가지 유형의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초래하게 된다.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1]에 의하면 고령의 노인일수록 평생학습 참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25-34세 37.3%, 55-64세 21.2%), 중고령자의 학습참여도가 낮은 것은 경제적 환경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많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내실있는 고령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에 적합한 평생학습을 교육기관을 현재의 수준보다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에 순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되므로 중고령성인에게는 평생학습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평생학습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를 위한 준비의 방안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행복의 추구나 직업의 선택에 필요한 교육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성과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채 스스로 평생학습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경제적 신분의 상승에 목표를 두고 있는 현행의 평생학습의 교육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에게 평생학습 참여의 필요성과 설득력을 지닌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신분의 상승을 위한 교육기회의 접근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행

복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평생학습교육이 고령화사회에 기여하는 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안녕감이란 삶의 만족,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내적인 경험으로 생활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감정이며, 충만감, 마음의 안정, 포만감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2]. 특히,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무력감,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성취이론, 상하향적 이론, 활동이론, 몰입경험이론이 있다. 성취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이 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 이론적 고찰

### 2.1 노인 평생학습

평생학습은 1970년대 초 OECD가 중심이 되어 순환교육이란 이름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순환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평생교육에서 유래된 것이다[3]. 평생학습은 학습자 위주의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의미에서 평생교육과 구별된다.

특히 노인들에게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원인이 있다. 즉, 정보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노인들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 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처리 능력의 증대, 여가의 활용방안,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이데올로기의 위기

에 있어서 정체감의 혼란이 이유일 것이다.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다음의 이론이 가장 일반적이다. 첫째, 목표 지향형(goal-oriented)이론이다.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습득, 직업상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참여 동기가 명백하고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을 사용한다. 둘째, 활동지향형(activity-oriented)이론이다. 참여동기가 학습 내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는 행위나 행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학습 활동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인간관계의 유지와 만남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의 단조로움과 고독감, 소외의식 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셋째, 학습지향형(learning-oriented)이론이다. 새로운 지식이나 배움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참여하는 것으로, 즉 학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 2.2 심리적 안녕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심리적 안녕감에 관하여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다.

Dinner[4]는 안녕의 개념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의를 내렸다. 첫째, 외적·규범적 정의의 유형으로서 안녕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에 따라 측정된다. 둘째, 내적·정서적 정의로 감정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부정적 감정에 대한 상반된 개념으로 안녕이라는 것이다. 셋째, 내적 주관적 개념으로 안녕은 개인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생활만족과 동일한 개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Shin과 Johnson(1978)[5]은 자신의 삶을 질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Chekola는 개인적 욕구와 행복한 삶을 위한 만족의 정도라고 보았다[6].

상향이론에서는 행복을 즐겁고 괴로운 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관적 상태라고 보았다. 즉, 인간의 행복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며 삶에 대한 만족감 역시 결혼 및 가정생활, 재정상태, 주거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의 결과이다[7]. 반면 하향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건이나 상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활동이론에서는 안녕이란 인간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몰입경험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며,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다[8]. 즉, 행동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운 것으로서 외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지속되는 내재적 행동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얻는 경험을 몰입이라고 하였다.

최세은과 최슬기[9]는 Ryff[10]가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를 일부 보완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Ryff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연구한 국내 연구들은 그 결과에서 서구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1].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C, D 병원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5월8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일 동안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 61.3%(98명), 남자 38.7%(62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65-70세 44.4%(71명), 71-79세 33.1%(53명), 80세 이상 22.5%(36명)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51.3%(82명), 고졸 33.1%(53명), 전문대졸 이상 15.6%(25명)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1인가구 24.4%(39명), 부부가구 48.8%(78명), 2세대가구 26.9%(43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28.8%(46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0.0%(64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8.8%(30명) 300만원 이상 12.5%(20명)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N	(%)
Gender	M	62	38.7
	F	98	61.3
Age	65-70	71	44.4
	71-79	53	33.1
	80 over.	36	22.5
Education	Below M. school	82	51.3
	High school	53	33.1
	College or higher	25	15.6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Alone	39	24.4
	Couple	78	48.8
	2nd generation	43	26.9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46	28.8
	100-200\	64	40.0
	200-300	30	18.8
	Over 3 million won	20	12.5

### 3.2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를 독립변수로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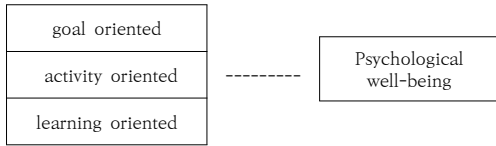


Fig.1. Research Model

### 3.3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학습참여 동기 중 목표지향성에 대한 설문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강한 욕망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우수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지향성의 경우 '보다 좋은 인관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지향성의 경우 '배움의 즐거움', '지식획득의 즐거움'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하루하루 할 일이 없다', '현재의 생활영역을 확장할 생각이 없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였다.

Table 2.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First	Final	Concept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motive	goal oriented	4	4	0.736	0.278	0.833
	activity oriented	4	4	0.745	0.294	0.842
	learning oriented	4	4	0.624	0.346	0.722
psy. well		7	6	0.936	0.314	0.921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and Analysis

	1	2	3	4	5
1. goal oriented	1				
2. activity oriented	.534*	1			
3. learning oriented	.521*	.543*	1		
4. psy. well	.483*	.351*	.503*	1	
5. average	3.48	.332	.401	.381	1
6. standard devi.	.731	.756	.653	.436	.562
7. skewness	-.544	-.164	-.548	-.234	-.086
8. kurtosis	.068	.246	.196	-.522	-.164

###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의 값을 구했다. 둘째, 측정변수인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구성,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자의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및 상관분석

#### 4.1.1 타당성 검증

타당성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측정도구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7번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0.5 미만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통제 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타당성 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 4.1.2 신뢰성 검증

신뢰성(reliability)은 검정은 특정 변수를 반복해서 측정할 때 동일한 결과 값이 도출되는지에 대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특정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 간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신뢰성을 검정하는 방법으로는 반복측정의 과정을 통하여 검사-재검사 신뢰성(test-retest reliability), 다양한 종류의 측정도구를 이용한 신뢰성(alternative form reliability), Cronbach's  $\alpha$ 계수 등이 있다[12]. 여러 측정 항목들로 구성된 척도의 경우 Cronbach's  $\alpha$  계수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뢰성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 검증에서 통제된 문항들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 4.1.3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Table 3에서 설명하고 있다. 왜도의 경우 절대값이 최소 .086에서 .548, 첨도는 절대값이 최소 .068에서 최대 .522로 정규분포를 벗어나지 않았다. 상관관계 또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평생학습 참여자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등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목표지향성에서는 65-70세가 활동지향성에서는 71-79세, 학습지향성에서는 71-79세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목표지향성에서는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확인한 결과 목표지향성에서는 부부가구가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2세대 가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지향성과 학습지향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dependent sample t verification by gender

	Gender	N	Aver.	S.D	Mean Diff.	t-value	p-value
goal oriented	M	62	2.44	0.96	-0.54	-4.341	.000
	F	98	2.63	1.16			
activity oriented	M	62	2.36	1.14	-0.42	-3.301	.001
	F	98	2.74	1.08			
learning oriented	M	62	2.42	1.13	-0.28	-2.332	.042
	F	98	2.61	0.94			
psy. well	M	62	2.61	0.92	-0.52	-4.231	.000
	F	98	3.02	1.01			

Table 5. Independent sample t verification by Age

	Age	N	Aver.	S.D	F-value	Post-examination
goal oriented	65-70(a)	71	2.62	1.16	8.621***	a, b>c
	71-79(b)	53	2.68	1.02		
	80 over(c)	36	2.36	1.14		
activity oriented	65-70(a)	71	2.46	1.03	4.543**	b>a, c
	71-79(b)	53	2.81	1.02		
	80 over(c)	36	2.42	1.11		
learning oriented	65-70(a)	71	2.64	0.86	3.922**	b>a, c
	71-79(b)	53	2.54	0.94		
	80 over(c)	36	2.41	0.78		
psy. well	65-70(a)	71	3.12	1.06	1.431	-
	71-79(b)	53	3.23	1.08		
	80 over(c)	36	3.02	1.24		

#### 4.4 연구문제 검증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나타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등의 변수를 통제한 다음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효과 검증결과는 Table 8부터 Table 10에서 제시하였다. 목표지향성( $\beta = .244, p < .001$ )은 Table 9에서 제시한 바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2는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성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활동지향성( $\beta = .321, p < .001$ ) 또한 Table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3은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학습지향성( $\beta = .284, p > .001$ )은 Table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Independent sample t verification by Education

	Edu.	N	Aver.	S.D	F-value	Post-examination
goal oriented	Below M.school	82	2.21	1.07	3.821***	c>a, b
	High School	53	2.26	1.02		
	College or higher	25	2.43	0.96		
activity oriented	Below M.school	82	2.41	1.01	4.335	-
	High School	53	2.48	0.92		
	College or higher	25	2.66	1.06		
learning oriented	Below M.school	82	2.83	0.89	4.231	-
	High School	53	3.02	0.98		
	College or higher	25	3.08	0.96		
psy. well	Below M.school	82	2.33	1.12	10.322**	c>a, b
	High School	53	2.64	1.14		
	College or higher	25	3.14	0.99		

Table 7. Independent sample t verification by Family

	Family	N	Aver.	S.D	F-value	Post-examination
goal oriented	Alone	39	2.72	1.11	7.104***	b>a, c
	Couple	78	2.83	1.06		
	2nd Gen	43	2.81	1.14		
activity oriented	Alone	39	2.65	1.02	2.463	-
	Couple	78	2.46	1.04		
	2nd Gen	43	2.38	0.98		
learning oriented	Alone	39	2.82	0.94	2.882	-
	Couple	78	3.02	0.98		
	2nd Gen	43	3.64	0.92		
psy. well	Alone	39	2.36	1.21	8.651***	c>a, b
	Couple	78	2.42	1.02		
	2nd Gen	43	3.04	1.03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goal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d. var: psy. well

		non-stand	stand( $\beta$ )	t-value	sig.(p)
control-var.	C	4.036	-	14.362	.000
	gender	.162	.068	1.722	.078
	age	.053	0.72	1.066	.002
	marr.	-.304	-.234	-3.113	.048
	edu.	-.201	-.106	-1.664	.000
ind.var	goal-oriented	.244	.321	5.254	.000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activity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on-stand	stand.(β)	t-value	sig.(p)
control-var.	C	3.112	-	12.301	.000
	gender	.142	.084	1.842	.054
	age	-.014	-.026	-.288	.958
	marr.	-.233	-.117	-1.631	.109
	edu.	-.042	-.049	-.932	.454
ind. var.	activity-oriented	.321	.438	8.994	.000

ind. var: psy. well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learning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on-stand	stand.(β)	t-value	sig.(p)
control-var.	C	4.443	-	12.322	.000
	gender	.264	-.114	2.623	.014
	age	-.033	-.036	-.402	.822
	marr.	-.296	-.122	-1.892	.124
	edu.	-.048	-.048	-.902	.000
ind.var.	learning-oriented	.284	.412	6.412	.066

ind. var: psy. well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참여동기를 목표지향성,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으로 설정하고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강한 욕망과 학습을 통해서 남들보다 우수해지고 싶은 욕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성 역시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관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즉, 평생학습을 통해서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향성이란 배움을 통해서 즐거움과 지식 획득이 목적이라고 볼 때 학습기회를 얻는 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소외감과 고립감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적 참여에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은 학습지향적인 즉, 학문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평생학습참여 동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현재 노인평생학습 참여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학습만족, 참여만족 프로그램 만족 등에 관한 연구로 비교 가능한 논문이 전무한 상태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설문대상지역을 충남 천안시의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방법에도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분석한 양적연구에 한정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개개인에 대한 면담 자료의 분석 등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2010 National Survey of Lifelong Learning,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 [2] H. K. Kim,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Department of Urb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09.
- [3] S. O. Choi, A study on Facto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Affecting Elderly Learner'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Urban Studies,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2012.

- [4] Diener, E., Oishi, S., & R. E. Lucas,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425, 2003.
- [5] Csikszentmihalyi, M., *Flow*.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Harper Collins. Kindle Edition, 2008.
- [6] David Kahn, Montessori and optimal experience research: Toward building a comprehensive education reform. *The NAMTA Journal*, 28(3), 1-10, 2003.
- [7] H. Kang, Research on the Concentration in Performing Figure and Language Assignment According to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s of Middle School Students, *Welfare Counseling Research*, 3(2), 121-143, 2014
- [8] Csikszentmihalyi, M., *The evolving self: Psychology for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Harper Collins. Kindle Edition, 2009.
- [9] S. E. Choi & S. K. Choi, Conceptualizing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with Confucian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6), 101-123, 2016.  
DOI: <http://dx.doi.org/10.21562/kjs.2016.12.50.6.101>
- [10] Ryff, C. 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1995
- [11] Optiz, A., *Learning centers: Getting them started, keeping them going*. New York: Scholastic Professional Books, 2001.
- [12]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112>
- [13] Y. H. Kee, Analysis of Old People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to Lifelong Learning in High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8, No.3, 89-102, 2005.

김기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성평가원장
- 2012년 5월 ~ 현재 :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이사장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선천적성, 진화심리, 직업상담, 타고난 재능